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명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석사과정 한화숙

目 次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다양하게 변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의복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표현 방법인 동시에 자기 만족을 위한 개성 표현 및 연출의 한 방법이 된다. 남성들 사회에서도 의복은 사회적 지위나 직업내 성취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외면적인 표현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표현이 포함된 일종의 무언의 언어로 작용한다. 의복을 선택하거나 착용하는 동기는 개인의 생활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할 때는 소유하고 있는 의복 자체의 요인 외에 날씨, 사회활동과 같은 일시적, 외적 요인과 성격과 같은 지속적,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주게 된다.

의복 착용이 인간생활의 한 영역이 될 때 매일의 의복선택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모든 양식을 뜻한다. 1980년대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의복시장 세분화,¹⁻³⁾ 의복 평가기준,⁴⁻⁵⁾ 상표선호도,⁶⁻⁸⁾ 의복구매행동,⁹⁻¹¹⁾ 유행 및 의복행동¹²⁾⁻¹³⁾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소비자행동 측면에서 연구되었고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우기 지금까지의 의복선택동기에 관한 연구도 주로 의복구매시의 동기와 의복가치관 측면에서의 동기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의복연구의 한 측면으로서 남성을 대상으로 매일 입는 의복의 선택동기와 라이프 스타일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선행연구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의복구매행동이나 평가기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라이프 스타일은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원을 분류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유형화시켜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 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대상을 유형화시켜 유형화시킨 집단들의 특성을 밝힌다.
2. 남성의 매일의 의복선택동기 내용 및 요인을 조사한다.
3.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이를 조사한다.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이를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라이프 스타일이란 사람들이 살아가고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전반적인 양식을 나타내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 태도, 신념 및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¹⁴⁾ Engel, Blackwell, Miniard¹⁵⁾는 라이프 스타일이 소비자의 동기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사전학습, 사회계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만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요약된 구조물이라고 하였다.

라이프 스타일 분석방법은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이 있으며, 미시적인 방법에는 싸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 분석법, AIO 분석법이 있다.¹⁶⁾ 싸이코그래픽스는 정신을 나타내는 싸이코(psycho)와 윤곽을 나타내는 그래픽스(graphics)의 합성어로서 소비자의 심리적 과정이나 특성을 나타낸다.¹⁷⁾ AIO 분석법은 조사대상자의 활동(Activities), 흥미(Interest), 의견(Opinion)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라이프 스타일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¹⁸⁾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관련 연구는 대부분 AIO 분석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자행동에 대한 예측수단으로 의복은 가장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

이 된다.¹⁹⁾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의생활 특성과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혜지²⁰⁾의 연구에서 개성추구형은 의복관심이 높았고, 소극정체형은 의복관리나 유행에 무관심하였다. 전통보수형은 의복관리에는 관심이 적으나 품위를 중요시하였고, 의견선도형은 의복 및 유행에 관심이 높았다. 김인순⁸⁾의 연구에서 유행추구형은 구매시 디자인을 중요시하였고, 경제추구형은 정장브랜드를 선호하였다. 보수주의형은 고가의 수입브랜드를 선호하였으며, 또한 구매시 재질을 중요시하였다. 김현미¹³⁾의 연구에서는 경제절약형이 의복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중요시하였고, 유행추구형은 심미성을 특히 고려하였다. 또한 25세 이하의 집단에서는 유행추구형이 많았고, 26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경제절약형이 많았다.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김정희⁶⁾의 연구에서 자기개발형은 보수알뜰형 및 소극침체형에 비해 현대적 감각의 정장형을 더욱 선호하였으나, 40~5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정정은⁷⁾의 연구에서는 여유안정형, 소극침체형, 의견선도형의 3집단 모두가 유행성이 낮은 정장형을 선호하였다. 즉 중년 남성의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계없이 의복선호가 비교적 획일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희⁶⁾의 연구에서 30대는 보수적 정장형의 의복을 선호하였으며 20대는 현대적 캐주얼형을 선호하였다. 정정은⁷⁾의 연구에서 여유안정형은 학력이 가장 높았으며 관리직이 많고 대체로 정신노동자 집단에 속했다. 소극침체형은 자영업 공업이 가장 많고 육체노동자 집단에 속했다. 의견선도형은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중간층으로 나타났다.

2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권순기¹²⁾의 연구에서 라이프 스타일 중 외모지향형 점수는 유행혁신자가 비유행혁신자보다 높았으나 적극적 사회활동형과 여가활용형 점수는 유행혁신자와 비유행혁신자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김영인¹⁾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은 물질추구성과 과외활

동성이 높을수록 유행감각의 분위기를 추구하였으므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유행추구와의 관련성이 연령층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행추구형이나 개성추구형의 남성은 의복이나 의복 디자인, 유행, 심미성에 관심이 많았으며 경제절약형은 의복의 외적인 면보다 실용적인 면에 관심이 많았다. 전통보수형, 보수주의형은 의복의 품위와 재질을 중요시하였으며 자기개발형은 현대적 감각의 정장형을 선호하였다.

2. 매일의 의복선택동기

인간 행동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란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를 뜻한다.²¹⁾ 의복은 인간행동의 표현으로서 의복을 착용하는 데에도 동기가 작용되는데, 의복착용동기는 의복기원의 측면, 의복행동이나 의복가치관 측면, 매일의 의복선택에 관한 동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가지 측면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중복되는 특성을 내포한다.

의복기원 측면에서의 의복착용동기로는 보호성, 정숙성, 비정숙성, 장식성, 주술적 목적, 인정받으려는 욕구 등이 있다.²²⁾

의복가치관 측면에서의 의복착용동기는 학자마다 연구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다음의 5가지 특성들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첫째 그 시대를 지배하는 도덕·윤리 및 전통적 관습에 따르려는 정숙성, 둘째 타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획득하려는 심리에서 기인한 동조성, 셋째 경제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감안한 경제성, 넷째 사회심리적 보호와 신체적 보호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보호성,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성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²³⁾ 이를 세분하면 정숙성, 동조성, 개성, 유행, 신체적 안락감, 경제성, 관리성, 심미성, 신분상징성, 사회적 인정성, 과시성 등이 있으며 연

구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의복선택과 착용동기에 관한 Evans²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데는 타인의 인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두번째 요인은 타인과 비슷해지려는 동기였다. 또한 독립적으로 보이려는 동기는 의복 구입시에는 중요시되었으나 착용시에는 중요시되지 않았다. Gurel 등²⁵⁾은 동료집단에 동조하려는 경향과 의복선택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의복선택은 어느 정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한 개인이 그날 입을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할 때 그 의복을 입게 된 이유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소유하고 있는 의복 자체의 요인 외에 날씨, 사회활동과 같은 일시적 외적 요인과 성격과 같은 지속적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어떤 측면은 의복가치관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의복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의복 한 벌을 골라 입을 때는 여러가지 동기가 발생한다. 즉, 개인에 따라 매일 매일 그리고 순간 순간 변화하며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옷차림을 하는가 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Kwon²⁶⁾은 미국 중서부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매일의 의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동기 요인을 날씨, 사회활동, 실용성, 기분, 신체적 특성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외적 요인)과 의복지향, 성격과 같은 지속적 요인(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날씨와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외적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기분은 가장 큰 내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신체적 특성은 자기 신체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에 관한 요인으로 이에 따라 좋은 옷차림 연출이나 의복 무관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내적·외적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기분은 날씨와 신체적 특성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날씨와 신체적

특성이 기분에 영향을 주고 또 기분이 그 사람의 의복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won²⁷⁾은 매일의 의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상황적 외적 요인, 상황적 내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영향인 의복지향 요인의 세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상황적 외적 요인이란 실제적 제한(착용 가능성), 사회활동, 날씨 환경, 신체적 특성, 시간 제약, 기분 등을 의미한다. 상황적 내적 요인은 심리적 상태를 뜻하며, 개인의 의복지향은 개인의 의복선호를 의미한다. 여대생의 매일의 의복선택에는 상황적 외적 요인과 의복지향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주부의 매일 의복선택에는 상황적 내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매일의 의복선택동기가 착용자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남성이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하는 데 작용하는 동기를 외적 상황 영향 요인, 심리적 영향 요인, 의복 요인 등을 포함시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라이프 스타일 측정 문항,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에 관한 측정 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이프 스타일 측정은 선행 연구^{3), 5), 6), 8), 13)}에서 사용한 문항 중 36개의 문항을 택하여 조사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그 내용 구성은 경제지향성 7문항, 적극적활동성 7문항, 전통지향성 6문항, 외모지향성 10문항, 여가활용성 6문항으로 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단계의 Likert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란 매일 외출시 입을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게 되는 동기를 의미한다. 매

일의 의복선택동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장남성 41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맞게 21문항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또한 kwon²⁰⁾의 연구에서 사용한 8문항을 선택하여 총 29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 구성은 외적 상황 영향 동기 10문항, 심리적 영향 동기 5문항, 의복 동기 7문항, 의복 무관심 7문항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단계의 Likert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구성 내용에 따른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외적 상황 영향 동기 : 그 날의 날씨, 시간, 장소, 모임의 특성이나 만날 상대 등의 자연 환경과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나 개인이 소속된 환경과 관련된 선택동기를 의미한다.

(2) 심리적 영향 동기 : 그 날의 기분이나 심리 상태에 따른 의복선택동기를 의미한다.

(3) 의복 동기 : 의복의 조화나 의복의 편안성 등 의복 자체의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의복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를 의미한다.

(4) 의복 무관심 : 매일 같은 옷을 반복해서 입거나 타인 또는 가족의 권유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는 등 의복에 대한 무관심이 매일의 의복선택에 작용하게 되는 내용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은 연령, 학력, 결혼여부, 사회계층을 포함하였다. 사회계층은 상류층의 상, 하와 중류층의 상, 중, 하와 하류층의 상, 하로 하여 7단계로 나누었고, 주관적 측정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집은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및 전문직의 20, 30대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임의추출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1995년 4월중이었다. 3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그 중 304부를 회수하여 기입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하고 총 267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49.1%, 30대가 50.9%였고, 기

혼자가 54.3%, 미혼자가 45.7%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0%, 전문대 졸업이 11.6%, 4년제 대학 졸업이 68.9%, 대학원 졸업 이상이 10.5%로서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나타냈다. 사회계층은 상류층과 하류층의 빈도수가 적어 통계처리 과정에서 항목들을 재분류하였다. 상류층과 중류층의 상층을 상류층으로, 중류층의 중층을 중류층으로 정하였고, 중류층의 하층과 하류층을 합하여 하류층으로 정하였는데 상, 중, 하류층이 각각 19.5%, 51.7%, 28.8%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남성의 유형화

1) 라이프 스타일의 요인분석

라이프 스타일 36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을 기준으로 고려하면서 처음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5개의 요인을 선택하였다. 문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처음에 설정된 요인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문항 9개를 제외한 27개 문항에 대해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라이프 스타일의 요인분석

요 인	요인부하량
요인 1. <외모지향성>	
나는 주위의 사람보다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자주 입는 편이다.	0.71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항상 외모에 신경 쓴다.	0.69
나는 새 옷을 구입할 때 유행에 관심을 둔다.	0.67
나는 옷을 고르는데 꽤 신경을 쓴다.	0.67
나는 내가 멋쟁이라고 생각한다.	0.67
나는 옷과 구두 등의 취향에 뚜렷한 개성이 있다.	0.59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을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본다.	0.58
가격이 높더라도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입한다.	0.53
나는 옷을 고를 때 밝고 화려한 색보다 눈에 덜 띄는 색과 평범한 디자인의 옷을 좋아한다.	-0.52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15.9	
고유치 : 4.28	
요인 2. <적극적활동성>	
친구, 동창회, 직장 등의 모임에는 적극 참여한다.	0.74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	-0.68
나는 취미 클럽이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0.59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다.	0.38
나는 모임(강연회, 사교 모임)이나 학원에 나가서 새로운 지식과 체험을 얻고 싶다.	0.36
나는 지금보다 더 변화있는 생활을 해보고 싶다.	0.33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9.1	
고유치 : 2.46	
요인 3. <경제지향성>	
나는 물건을 살 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일지라도 정보를 모아서 상품에 대한 비교를 해본 후 산다.	0.66
나는 흔히 할인매장에서 의복을 산다.	0.62
나는 내가 생각한 예산하에서만 지출을 한다.	0.49
집에 고장난 물건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내가 고치려고 한다.	0.49
상품을 고를 때는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45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7.4		고유치 : 2.01
요인 4. <여가활용성>		
스포츠 경기는 TV관람보다는 직접 운동장에 가서 본다.		0.69
나는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거나 듣는 걸 좋아한다.		0.66
나는 스포츠(수영, 보울링, 테니스)를 즐긴다.		0.45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6.3		고유치 : 1.71
요인 5. <현대지향성>		
대부분의 여성은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0.72
남편도 가정에 돌아와서는 주부와 함께 가사 일을 도와야 한다.		0.58
장남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0.49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49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5.4		고유치 : 1.45

<표 1>에서 요인 1의 문항 내용은 외모, 의복, 유행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나타낸 문항으로서 '외모지향성'이라 칭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2 이상이었다. 요인 2는 사회 활동 참여 정도, 변화되는 생활의 추구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적극적 활동성'이라고 칭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0.33 이상이었다. 요인 3은 예산된 지출과 절약하는 생활, 가격의 고려 등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지향을 나타낸 문항으로서 '경제지향성'이라고 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0.45 이상이었다. 요인 4는 문항의 내용이 스포츠 선호와 관람 등 여가 시간 활용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므로 '여가활용성'이라고 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0.45 이상이었다. 요인 5는 여성의 사회 활동,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 분담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대지향성'이라고 하였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9이상이었다. 여기서 처음에 설정되었던 전통지향성 문항은 요인 5에서 요인부하량이 음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현대지향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요인별 고유치를 요인 1에서부터 요인 5까지 순서대로 보면 4.28, 2.46, 2.01, 1.71, 1.45였고, 5개 요인의 누적변량은 44.1%였다.

2) 라이프 스타일 요인에 따른 집단의 유형화

직장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5개 차원에 대한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유형화시키는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측 집단수를 고려하여 3, 4개 집단으로 유형화시켜 각 집단을 살펴 본 결과 4개의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각 집단 내의 특성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선정된 4개의 집단의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요인의 평균점수와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를 검토하였다. <표 2>에서 집단간의 순위를 보면 집단 1은 적극적활동성, 현대지향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지향성과 여가활용성은 낮게 나타나 이 집단을 '적극적활동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2는 적극적 활동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지향성 요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므로 '경제관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3은 현대지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외모지향성, 적극적활동성이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현대주의형'으로 칭하였다. 집단 4는 외모지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외모관심형'으로 칭하였다.

각 라이프 스타일 집단별 구성 비율을 보면 적극적활동형이 84명으로 31.5%였고, 경제관심형이 68명으로 25.5%, 현대주의형이 49명으로 18.4%, 외모관심형이 66명으로 34.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극적활동형의 비율이 가장 많고 현대주의형의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각 집단간의 거리는 1.76~1.98로서 4집단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거리 차를 나타냈다.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X^2 검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 하 락, 결혼유무,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4 변인은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사무직과 전문직 종에 종사하는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동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표 2〉 군집분석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요인의 평균점수와 집단간의 순위

라이프 스타일	집단 1 (n=84)	집단 2 (n=68)	집단 3 (n=49)	집단 4 (n=66)	F
외모지향성	-0.22(B)	0.55(A)	-0.96(C)	0.42(A)	38.44**
적극적활동성	0.60(A)	0.33(B)	-0.72(C)	-0.58(C)	41.66**
경제지향성	-0.24(C)	0.73(A)	0.22(B)	-0.62(D)	30.66**
여가활용성	-0.73(C)	0.71(A)	0.28(B)	-0.01(B)	39.80**
현대지향성	0.18(A)	0.10(A)	0.40(A)	-0.62(B)	13.85**

** $P < 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결과($P < 0.05$)

2. 남성의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내용

직장 남성이 매일의 의복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복선택동기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사하였다. 문항 평균의 범위는 2.36~3.79였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0.61~1.07이었다. 가장 높은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그 옷이 편안하게 잘 맞으므로 자주 선택한다.' ($M=3.79$, $SD=0.61$)였고, 두번째는 '나는 의복과 의복이 서로 조화되는 것을 골라 입는다.' ($M=3.69$, $SD=0.71$)였는데, 이 두 문항은 표준편차가 낮았다. 그 다음에는 '가능한 한 양말은 의복과 조화되는 것을 신는다.' ($M=3.67$, $SD=0.89$), '나는 외출시 그날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려고 한다.' ($M=3.64$, $SD=0.78$)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동기로 나타난 것은 '나는 정장을 입을 때는 넥타이를 먼저 선택하고 난 후 다른 것을 조화시킨다.' ($M=2.36$,

$SD=0.86$), '나는 될수록 전날에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생각해 둔다.' ($M=2.56$, $SD=0.99$), '불안하거나 일이 잘되지 않을 때 좋은 옷으로 차려 입는다.' ($M=2.60$, $SD=0.85$), '나는 가족(아내나 어머니)이 매일 입을 의복을 권하는 대로 그냥 입는다.' ($M=2.62$, $SD=0.95$)의 순이었다.

즉 직장 남성들이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그 옷이 편안하게 잘 맞기 때문이며, 이것은 표준편차가 낮아 비교적 모든 남성들에게 동질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복과 의복이 서로 조화되는 것을 고려하며, 외출시 그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장을 입을 때 넥타이를 먼저 선택하고 난 후 다른 것을 조화시키거나, 전날에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생각해 두거나, 불안하거나 일이 잘되지 않을 때에 기분을 돋우기 위해 좋은 옷으로 차려

입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own²⁶⁾의 연구에서는 기분이 중요한 내적 요인이라고 함으로써 연령, 성별 및 문화에 따라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하는 동기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매일의 의복선택동기 29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라이프 스타일의 요인분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처음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4개 요인을 선택하여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요인과 부합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한 후 20개 문항에 대해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3.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요인분석

<표 3>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요인분석

요 인	요인부하량
요인 1. <의복조화추구>	
나는 의복에 신경 쓰기 싫어서 같은 옷을 오랫동안 계속 입는 편이다(R).	-0.76
넥타이는 의복과 조화되지 않더라도 전날 사용한 것을 그대로 착용한다(R).	-0.71
나는 의복과 의복이 서로 조화되는 것을 골라 입는다.	0.66
가능한 한 양말은 의복과 조화되는 것을 신는다.	0.62
나는 입을 옷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전날 입었던 옷은 입지 않는다.	0.54
신은 거의 매일 같은 것을 신는다(R).	-0.51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19.8	고유치 : 3.96
요인 2. <의복실용성추구>	
그 옷이 편안하게 잘 맞으므로 자주 선택한다.	0.77
나는 어떤 옷은 간편하므로 자주 입게 된다.	0.75
서둘러야 할 때 손쉬운 옷을 아무거나 입는다.	0.63
어떤 옷은 그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므로 자주 입는다.	0.49
관리하기 편한 옷을 자주 입게 된다(오염방지가공,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 등).	0.44
나는 되도록 세탁이 편한 옷으로 골라 입는다.	0.44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14.0	고유치 : 2.81
요인 3. <심리적영향>	
흐리거나 비오는 날은 기분을 돋우기 위해 밝은 옷을 선택한다.	0.79
불안하거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좋은 옷으로 차려 입는다.	0.70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에는 평소에 입지않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0.59
침체된 기분일 때는 밝은 옷을 입는다.	0.55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8.6	고유치 : 1.72
요인 4. <외적상황적응>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에는 이웃 저웃을 입어보고 가장 적합한 옷을 선택한다.	0.70
근무하는 날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미지에 맞게 옷을 선택한다.	0.69
나는 입을 의복을 선택하기 전에 그날 만날 사람이 누군가를 미리 고려한다.	0.59
나는 의복을 선택하기 전에 밖의 날씨를 알아본다.	0.44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6.5	고유치 : 1.29

R : 반대로 채점되는 문항

〈표 3〉을 살펴보면 요인 1은 모두 6개의 문항으로 그 내용은 의복과 넥타이, 양말, 신 등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므로 '의복조화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의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1 이상이었다. 요인 2는 6개의 문항으로 그 내용은 의복의 맞춤새, 기능성, 세탁이나 관리의 편리함에 관한 문항으로 '의복실용성추구'로 명명하였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4 이상이었다. 요인 3은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침해된 기분일 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심리적영향'이라고 명명하였다.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5 이상이었다. 요인 4는 4개의 문항으로 날씨, 모임, 만날 상대, 근무 상황 등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에 관한 문항으로 '외적상황적응'이라 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4 이상이었다.

요인별 고유치를 요인 1에서부터 요인 4까지 순서대로 보면 3.96, 2.81, 1.72, 1.29였고, 4개 요인의 누적변량은 48.9%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장 남성의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의복조화추구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설정한 내용 중에서 의복 무관심은 요인분석 결과 의미있는 요인으로 도출되지 못하였으며 의복 동기는 의복조화추구와 의복실용성추구 요인의 두 가지 동기로 분류되었다.

4.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매일의 의복 선택동기의 차이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 요인의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 의복선택동기	적극적활동형 (n=84)		경제관심형 (n=68)		현대주의형 (n=49)		외모관심형 (n=66)		F
	M	SD	M	SD	M	SD	M	SD	
의복조화추구	18.62	2.05	19.09	1.81	18.66	2.16	18.42	1.80	1.39
의복실용성추구	21.49(A)	2.60	21.16(A)	2.82	20.98(A)	3.22	19.76(B)	2.90	4.93**
심리적영향	11.04(B)	2.26	12.43(A)	2.22	11.27(B)	2.11	11.39(B)	2.22	5.43**
외적상황적응	12.07(AB)	2.62	13.26(A)	2.30	11.45(B)	2.29	12.47(A)	2.46	5.83**

** P<0.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결과(P<0.05)

〈표 4〉에서 볼 때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의복조화추구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의복실용성추구 요인은 외모관심형이 낮고 적극적활동형, 경제관심형, 현대주의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영향 요인은 경제관심형이 높고 적극적활동형, 현대주의형, 외모관심형 집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외적상황적응 요인은 경제관심형, 외모관심형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주의형이 낮게 나타났다. 즉 적극적활동형, 경제관심형과 현대주의형은 외모관심형에 비

해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 의복의 실용성을 더 많이 고려하는 편이었으며 경제관심형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의복실용성, 심리적영향, 외적상황적응 요인 모두를 많이 고려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경제관심형은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 의복의 실용적인 면, 자신의 심리적인 면, 그날의 날씨나 모임 등 여러가지 요인을 많이 고려하였는데, 이것은 경제관심형의 현실적응성이 높은 생활태도가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 여러 요인을 골고루 고려하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외모관심형 집단은 의복실용성추구

는 낮았으나 외적상황적응 요인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었는데, 이것은 외모관심형이 외적인 면에 관심이 높으므로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도 타인이나 외부 환경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외모관심형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Cassill과 Drake⁴⁾의 연구에서 라이프 스타일 요인 중 매력적인 신체추구가 높을수록 의복의 타인지향성을 추구하고 경제성을 중요시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매일의 의복 선택동기의 차이

연령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 요인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령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 요인의 차이

연령	20대(N=131)		30대(N=136)		t
	M	SD	M	SD	
의복선택동기					
의복조화추구	20.02	3.56	19.52	3.84	1.10
의복실용성추구	21.07	3.09	20.71	2.73	1.02
심리적영향	11.67	2.70	10.81	2.38	2.75**
외적상황적응	12.72	2.52	12.01	2.45	2.31*

*p<0.05, **p<0.01

<표 5>에서 볼 때 심리적영향 및 외적상황적응은 연령에 따라 p<0.01 및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의복조화추구 및 의복실용성추구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와의 관계에서 20대가 30대에 비해서 심리적영향 요인과 외적상황적응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20대가 30대에 비해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에 기분이나 외적 상황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여부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복조화추구, 의복실용성추구, 외적상황적응은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적영향은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11, p<0.01, 기혼 M=10.79, 미혼 M=11.76). 심리적영향 요인은 기혼보다 미혼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미혼이 기혼에 비해서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 심리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와 같은 결과로서, 젊은 미혼 남성이 기혼보다 좀 더 정서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므로 매일의 의복선택시에도 심리적인 면에 영향받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학력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 요인의 차이

학력	전문대졸 이하(N=55)		대졸 이상(N=212)		t
	M	SD	M	SD	
의복선택동기					
의복조화추구	20.25	3.53	19.64	3.75	1.09
의복실용성추구	21.65	3.20	20.68	2.81	2.22*
심리적영향	11.62	2.52	11.14	2.58	1.24
외적상황적응	12.98	2.49	12.20	2.49	2.08*

*p<0.05

<표 6>에서 보면 의복실용성추구 및 외적상황적응은 학력에 따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의복조화추구 및 심리적영향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복실용성추구 요인과 외적상황적응 요인은 모두 전문대졸 이하의 남성이 대졸 이상의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이 낮은 사무직 남성들이 편안하거나 관리하기 편한 실용적인 옷차림을 좋아하며 그날의 날씨나 모임을 의식하는 등 여러가지 외부의 상황을 좀 더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 요인의 차이

사회경제적 수준 의복선택동기	상류층 (N=52)		중류층 (N=138)		하류층 (N=77)		F
	M	SD	M	SD	M	SD	
의복조화추구	19.37(A)	2.02	18.46(B)	1.93	18.68(B)	1.89	4.18*
의복실용성추구	21.33	3.21	20.71	2.83	20.90	2.86	0.85
심리적영향	11.69	2.63	11.12	2.58	11.13	2.52	1.02
외적상황적응	13.23(A)	2.85	12.20(B)	2.37	12.06(B)	2.40	4.06*

* $p < 0.05$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p < 0.05$)

<표 7>에서 볼 때 의복조화추구 및 외적상황적응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의복실용성추구 및 심리적영향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복조화추구와 외적상황적응은 중류층과 하류층에 비해 상류층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류층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 사회적 활동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적합한 옷차림을 하려 하고 의복끼리의 조화를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연령, 학력, 결혼여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원을 분류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유형화시켜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에서 사무직 및 전문직에 근무하는 20대, 30대 직장 남성 267명이었고, 연구방법은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라이프 스타일은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외모지향성, 적극적활동성, 경제지향성, 여가활용성, 현대지향성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이 5개 차원에 의해 직장 남성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적극적활동형, 경제관심형, 현대주의형, 외모관심형으로 나타났다.

2. 직장 남성들이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하게 되는 주된 동기는 그 옷이 편안하게 잘 맞기 때문에, 의복과 의복이 서로 조화되는 것을 골라 입기 위해, 외출시 그날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골라 입기 위해서 그 의복을 선택하였다.

3.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의복조화추구, 의복실용성추구, 심리적영향, 외적상황적응 요인의 4개 차원으로 나타났다.

4.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의복조화추구 요인을 제외한 3가지 차원에서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관심형은 매일의 의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의복실용성추구, 심리적영향, 외적상황적응 요인이 모두 높았다. 이것은 경제관심형의 현실적응성이 높은 생활 태도가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적극적활동형과 현대주의형은 의복실용성추구 요인이

높았으며, 외모관심형은 다른 유형보다 의복실용성추구 요인은 낮고, 외적상황적응 요인이 높은 편이었다.

5.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연령, 학력, 결혼여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20대가 30대에 비해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 심리적인 면과 외적인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였으며,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심리적인 영향을 더 받았다.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의복의 실용성과 여러가지 외적인 상황을 더 고려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류층일수록 의복끼리의 조화와 외적인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매일의 의복선택동기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리 나타나, 적극활동형과 현대주의형은 의복실용성을 많이 고려하였으며 외모관심형은 그날의 외적인 상황을 좀 더 고려하였다. 경제관심형은 의복 및 여러가지 상황을 다양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연령, 학력, 계층 등에 따라 매일 입을 의복을 선택할 때 그날의 모임이나 날씨 등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20대, 30대 직장 남성에게 국한시켰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즉, 연령층을 50대 이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지역이나 직업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표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직업별 구분을 명확히 설정하여 직업에 따른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체계화된 매일의 의복선택동기에 관한 측정문항이 개발되어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인. "패션이미지에 의한 남자대학생 의류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 33, 1992, pp.299~314.

2) 이혜주.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직업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3) 원 선. "의복변인에 의한 시장세분화 및 라이프 스타일 변인과의 관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4) Cassill, N.L., & Drake, M.F. "Apparel selection criteria related to female consumers' life styl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 1, 1987, pp.20~28.

5) 김미영. "생활양식 유형과 의복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6) 김정희. "성인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상표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7) 정정은. "중년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기성복 상표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8) 김인순. "라이프 스타일 특성에 따른 신사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9.

9) 박진범. "여성 의출복 구매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10) 손미영. "여성기성복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 스타일 변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11) 임경복.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여대생의 소비시간 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12) 권순기. "남성 유행혁신자의 의복행동과 라이프 스타일 특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13) 김현미. "성인 남성의 의복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20대 남성의 캐주얼 의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14) 최병룡. 「최신소비자행동론」. 개정판. 서울 : 박영사, 1992.
- 15) Engel, J.F., Blackwell, R.D. and Miniard, P.W. *Consumer Behavior*. 5th ed., Chicago : The Dryden Press, 1986, p.252.
- 16) 김원수. 「마케팅 정보 시스템론」. 서울 : 박영사, 1987, pp.389~440.
- 17) 이학식, 안광호. 「소비자행동 : 마케팅 전략적 접근」. 서울 : 법문사, 1992, p.258.
- 18) 김동기, 이용학. 「소비자행동분석 :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적용」. 서울 : 박영사, 1992, pp. 302~303.
- 19)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p.30.
- 20) 방혜자. “라이프 스타일과 디자인 선호도의 관련성 연구 : 남성 캐주얼 웨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1) 이장호. 「심리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83, p.101.
- 22)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 Arno Press, 1976, pp.13~25.
- 23) 유정렬. “연령 및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착용 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86.
- 24) Evans, S. E. “Motivations underlying clothing selection and wear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6, 10, 1964, pp.739~743.
- 25) Gurel, L.M., Wilbur, J.C., and Gurel, L. “Personality correlates of adolescent clothing styl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 3, 1972, pp.42~47.
- 26) Kwon, Y.H. “Daily clothing selection : Interrelationship among motivating facto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 2, 1987, pp.21~26.

- 27) Kwon, Y.H. “Effects of situational and individual influences on the selection of daily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 4, 1988, pp.6~12.

ABSTRACT

A Study on Life Style and Daily Clothing Selection Motives of Me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daily clothing selection motives and to group men into life style type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daily clothing selection motives according to the life style types.

Questionnaire comprised of three sections : 36 Likert type items of life style measure ; 29 Likert type items of daily clothing selection motives measure ; and 4 demographic variables.

Samples were 267 salary men in their 20's to 30's in Seoul,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t-test.

1. Five factors of life style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 F. 1 'appearance oriented' ; F. 2 'positive activity' ; F. 3 'economy oriented' ; F. 4 'active leisure' ; F. 5 'contemporary'. Four types of life style of men were defined by cluster analysis of the five factors : T. 1 'positive activity' ; T. 2 'economy interest' ; T. 3 'contemporary' ; T. 4 'appearance interest'.

2. Four factors of daily clothing selection motives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 F. 1 'clothing harmony' ; F. 2 'clothing utility' ; F. 3 'psychological influence' ; F. 4 'exogenous situation adaptation'.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ily

clothing selection motives according to the life style types. The types of positive activity, economy interest, and contemporary had 'clothing utility' motive more than appearance interest type. Economy interest type had 'psychological influence' motive more than other three types. Economy interest type and appearance interest type had 'exogenous situation adaptation' motive more than other two

types.

4. 20's and unmarried men had 'psychological influence' motive more than 30's and married. Upper class had 'clothing harmony' and 'exogenous situation adaptation' motives more than middle and low. Men with less education had 'clothing utility' and 'exogenous situation adaptation' motives more than did more education.